

건설동향브리핑

제529호 (2015. 9. 21)

■ 정책 · 이슈

- 2015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전기 대비 상승
- 서울시의 인프라 시설 안전확보 사업과 정책(III)

■ 경영 · 정보

- 해외 건설시장의 악재, 저유가와 중국의 경제 위기

■ 경제 동향

- 7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비 22.5% 증가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안전정책 발표 후 1년, 점검이 필요한 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15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전기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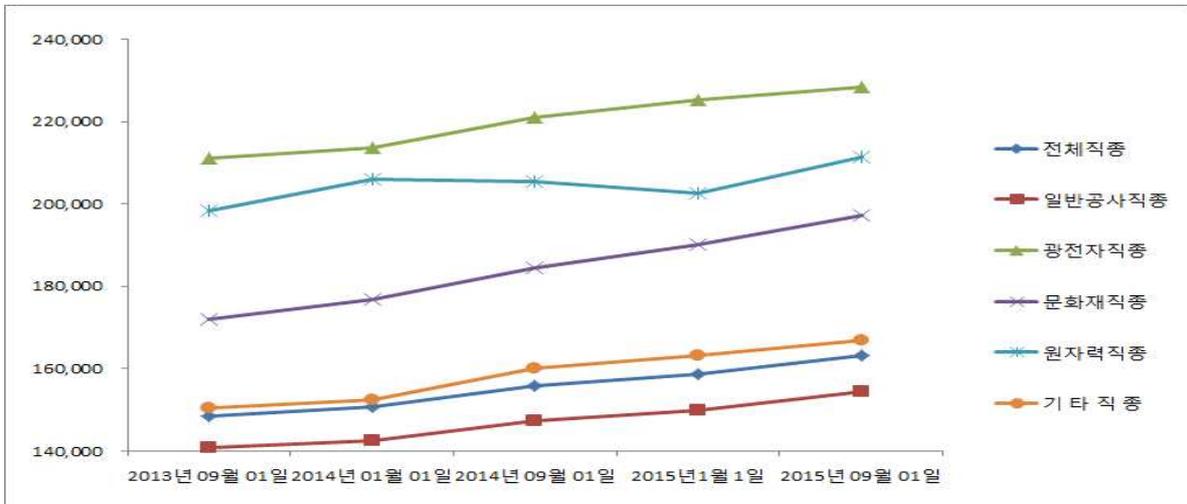
- 현장 신규 인력 감소 및 숙련공 부족으로 당분간 상승 예상 -

■ 전체 117개 직종, 전기 대비 3.0% 상승

- 지난 9월 1일, ‘2015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¹⁾’ 결과가 발표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17개 직종의 임금은 전기(2015년 1월 1일) 대비로는 3.0%, 전년(2014년 9월 1일) 대비로는 4.8%가 상승한 16만 3,339원인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전체 117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공사 직종이 전기 대비로는 2.9%, 전년 대비로는 4.7%가 상승한 15만 4,343원을 기록함.

<분야별 평균 임금 현황>

(단위 : 원)



	직종 수	2013.9.1	2014.1.1	2014.9.1	2015.1.1	2015.9.1
전체 직종	117	148,380	150,664	155,796	158,590	163,339
일반공사 직종	91	140,833	142,586	147,352	149,959	154,343
광전자 직종	3	211,106	213,715	220,954	225,312	228,408
문화재 직종	12	172,081	176,705	184,513	190,064	197,308
원자력 직종	4	198,225	206,068	205,402	202,459	211,249
기타 직종	7	150,490	152,362	160,079	163,185	166,795

주 : 2010.1.1자 공표 임금부터 개정된 직종 및 직종 수(145→117개)로 조사·공표돼 이전 공표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음.
 자료 : 대한건설협회

1) ‘건설업 임금실태’는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117개 직종의 일평균 임금을 조사해 1년에 두 번(상반기, 하반기) 공표하고 있음. 금년 하반기 임금실태조사는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우편조사, 인터넷 조사, 현장조사의 방법을 통해 전국 2,00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됨. 건설 현장은 크게 일반공사 직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광전자 직종[전기 직종(전기공사업 등록업체 현장), 정보통신 직종(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현장)], 문화재 직종(문화재 보수 시공업체 현장), 원자력 직종(원자력공사 시공업체 현장), 기타 직종의 5개 현장으로 나뉨.

- 광전자 직종은 전기 대비로는 1.4%, 전년 대비로는 3.4%가 상승한 22만 8,408원을, 문화재 직종은 전기 대비로는 3.8%, 전년 대비로는 6.9%가 상승한 19만 7,308원을, 원자력 직종은 전기 대비로는 4.3%, 전년 대비로는 2.9%가 상승한 21만 1,249원인 것으로 나타남. 그 외 기타 직종은 전기 대비 2.2%, 전년 대비 4.2%가 상승한 16만 6,795원을 기록함.
- 일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송전활선전공으로 39만 2,819원이었으며, 배전활선전공이 37만 3,173원, 송전전공이 35만 8,569원, 도편수가 29만 2,427원, 특고압케이블전공이 26만 975원으로 뒤를 이음.
- 반면, 일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직종은 보통인부로 8만 9,566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일반기계운전사가 9만 909원, 초급품질관리원이 9만 4,545원, 인력운반공이 9만 8,941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일당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안전 위험도가 높고 기술력을 요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반면, 일당이 낮은 직종은 높은 기술력을 요하지 않고 주로 단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음.

■ 현장 신규 인력 감소와 숙련공 부족으로 당분간 상승 지속 예상

- 시중노임단가가 <분야별 평균 임금 현황> 표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신규 기능인력의 현장 유입이 줄어들고 숙련공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최근 주택시장 호황에 따른 공사 물량 증가와 정부의 하반기 SOC 추정 예산 집행으로 건설 물량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 현장의 직종별 노임단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는 건설 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가 단시간 내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현장의 신규 인력 진입이 활성화되고 현장 인력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마련이 필요한 때임.

최은정(책임연구원 · kciel21@cerik.re.kr)

서울시의 인프라 시설 안전확보 사업과 정책(Ⅲ)1)

- 10년 뒤엔 30년 이상 노후관로 교체비용 매년 4,818억원 소요, 체계적 대책 마련 시급 -

■ 서울시 상수관로 설치 현황

- 서울시 상수관로의 총 연장은 13,793km(2013년 말 기준)로, 전체 상수관로 중 사용 연수 20년 이상인 관로는 약 7,054km로 51.1%에 달함.
-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로는 매년 평균 438km씩 증가

<서울시 상수관로 설치 연도별 현황>

사용 연수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연장(km) (총 연장 대비 비율)	1,303.9 (9.45%)	2,546.9 (18.47%)	2,416.8 (17.52%)	3,325.2 (24.11%)	3,728.8 (27.03%)

자료 : 환경부, 2013 상수도통계, 2015.1

- 상수관로 총 연장의 5.7%인 784.2km가 경년관²⁾임(2013년 말 기준).
- 급수관 중 27년 이상 경과한 스테인리스관(현재는 경년관에 미포함)은 245km이며, 향후 10년 간 매년 평균 143km씩 증가함.
- 송수관과 배수관 중 강관(에나멜 코팅 도복장강관)은 총 514km로서, 현재 64%만 경년관에 포함되어 있으나 향후 7년 내로 나머지(181km) 모두 경년관에 포함될 예정임.
- 10년 후 경년관은 최소 1,850km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 상수관로 노후화 실태 및 한계

- 가용 예산에 따라 노후 관로를 개선하며, 상수도 예산 중 18.5% 정도(2009~14년 평균)를 노후관로 개선에 배정하고 있음.
- 수도사업 예산 감소 추세 : 2009년(8,950억원)→2014년(7,910억원), 11.6% 감소
-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관련 예산 크게 감소 : 2009년(2,072억원)→2014년(1,242억원), 40.1% 감소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한토목학회·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가 공동 수행한 '서울시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개선 정책방향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였으며, 제525호(2015. 8. 24 발간)부터 10회로 나누어 부문별로 게재하고 있음. 본고는 제526호(2015. 8. 31 발간)에 이은 3회차임.

2)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상수도관 내용 연수를 초과한 관로

- 향후 10년 경과 후부터 30년 이상 노후관로가 매년 438km 증가하며, 교체 비용으로 매년 4,818억원이 필요한데 이는 전체 수도사업 예산의 50%를 상회하는 수준임.
- 더욱이 스테인리스관을 포함하면 앞으로 10년 간 경년관이 최소 1,850km 증가할 전망이다, 교체 비용으로 매년 1,840억원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서울시 상수관로 노후화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예산	895,000	801,000	843,000	816,000	814,000	791,000	
경상예산	누수 복구비	29,242	26,694	27,552	31,974	26,551	26,879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37,165	23,468	21,130	23,005	24,658	22,025
사업예산	수 관로 정비	140,800	88,000	98,600	106,800	91,576	75,310
합계 (전체 예산 대비 비율)	207,207 (23.2%)	138,162 (17.2%)	147,282 (17.5%)	161,779 (19.8%)	142,785 (17.5%)	124,214 (15.7%)	

자료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009~14 재구성

■ 노후 상수관로 성능개선 사업

- 서울시는 지난 1984년부터 아연도강관, 회주철관 등 녹이 잘 발생하는 수관로를 내식성 관으로 교체해오고 있으며, 2014년 현재까지 약 2조 8,000억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의 96.1%를 교체
 - 하지만 교체 초기 부설한 상수관로도 30년이 경과하여 재교체 시점이 도래하는 등 상수관로의 노후 상태에 대한 종합진단과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
-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함과 동시에 특히 도로지반 침하 발생 지역에 대한 우선적 대처가 요구됨.
 - 아직 미교체된 내식성이 취약한 상수관로 536km(2014년 10월 기준, 예상 사업비 6,000억원)에 대한 교체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노후 상수관로를 2010년까지 모두 교체키로 하였으나 예산 배정이 원활치 않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검토 필요
 - 강남 및 신촌 등 도로지반 침하 발생 지역의 노후 상수관로 교체를 시급히 추진(강남 지역의 경우, 매설된 지 35년을 초과한 상태)

이승우(연구위원 · swoolee@cerik.re.kr)

해외 건설시장의 악재, 저유가와 중국의 경제 위기

- 중동 산유국, 아시아와 중남미 신흥국의 경기 부진, 해외 진출 여건 악화 -

■ 저유가, 플랜트시장 악재로 작용

- 작년 7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 유가는 올해 들어 5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고, 9월에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 40달러대로 하락하였음.
 - 셰일가스 생산기술 발전에 따른 원유 생산량의 증가는 유가 하락을 가져왔고, 세계 경제의 부진으로 원유 소비가 위축되면서 저유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임.
- 석유 및 가스산업계는 매출 감소와 저수익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미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던 중동 플랜트시장의 사업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석유화학시설 분야의 최강자인 TECHNIP은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및 가스시장의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6,000명의 인력 감축, 자산 최적화 등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함.
- 원유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수입 감소와 경기 악화, 이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가 예상되며, 이들 국가에 진출해 있는 건설기업의 매출 역시 하락할 것으로 판단됨.
 -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7월, 재정 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8년 만에 국채를 발행했으며, 9월에는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릴 것을 발표함.
 - 중동 산유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등 원유 수출의존도가 높은 신흥경제국의 재정난이 심각해짐.

■ 새로운 위협, 중국발 경제 위기

- 올 6월 증시 폭락에서 이어지고 있는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중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낙관론과 중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론이 공존함.
 - 현재의 위기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고성장해온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으로, 이후 재정투자에서 내수 중심,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
 - 최근 중국의 부도위험지수(CDS프리미엄)가 유럽의 재정위기국보다 높았고, 중국과 함

계 아시아 신흥국들의 부도위험지수도 증가하면서 글로벌 위기로 이어질 우려도 존재

- 중국 경제의 위기가 글로벌 경제로 확산되는 상황은 피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관련 높은 국가 및 경제 기반이 취약한 신흥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편, 이들 국가의 건설시장 규모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원자재 수입 감소는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최근 회복세를 보였던 아프리카 건설시장도 중국 투자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위기는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축소로 이어질 것임.
- 수출 부양을 위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 건설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해외 건설시장의 가격경쟁 압박과 수익 저하를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됨.
 - 중국 건설기업은 투자 자금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의 해외 건설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크게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 이들 시장에서 가격경쟁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 해외 건설시장 전망 불투명, 매출 하락 대비책 마련해야

- 최근 전개되고 있는 저유가와 중국 경제 불안에 따른 위기는 해외 건설시장에 악재가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주요 진출 시장인 중동 및 신흥국의 건설경기 에 영향을 주고 있음.
 - *ENR*지가 발표한 250대 건설기업의 2014년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4.1%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그동안 높은 성장을 보여 왔던 해외 건설시장의 경기 하락을 예고
- 국내 건설기업의 2014년 해외 수주액은 중동 47%, 아시아 24%, 중남미 10%로 산유국 과 아시아 및 중남미의 신흥국에 집중되어 있음. 상품별로는 산업설비 부문이 78%로 플랜트에 집중된 해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저유가와 중국발 경기 위 기에 대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해외 건설시장의 사업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매출 하락과 수익 감소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 두어야 함.

성유경(책임연구원 · sungyk@cerik.re.kr)

7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비 22.5% 증가

- 기간 대비 역대 최대치 경신, 주택 호조세 지속, 공공 토목도 양호 -

■ 7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

- 2015년 7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 민간 모두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비 22.5% 증가함.
 - 지난 5월 전년 동월비 83.7% 급등한 이후 6월과 7월에 각각 46.4%, 22.5% 증가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7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8조 5,380억원을 기록,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임.
 - 민간의 주택수주가 매우 높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공공도 주택공종과 토목공종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음.

■ 공공 부문 : 19.2% 증가, 5개월 연속 증가

- 7월 공공수주는 토목과 주택이 양호해 7월 실적으로는 3년 내 최대치인 1조 8,269억원을 기록함. 결국, 전년 동월비 19.2% 증가하여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공공 토목수주는 철도 관련 수주와 토지조성수주가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비 15.9% 증가한 1조 1,645억원을 기록함.
 - 주택수주는 7월 실적으로는 5년 내 최대치인 4,14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지난해 수주가 부진했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비 419.6% 급등함.
 - 다만, 비주택 건축수주의 경우 전년 동월비 44.7% 감소한 2,476억원을 기록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2015년 7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4. 7월	6,969.4	1,532.7	1,004.8	527.9	79.8	448.0	5,436.7	395.7	5,041.1	2,690.6	2,350.5
2015. 7월	8,538.0	1,826.9	1,164.5	662.4	414.7	247.6	6,711.1	353.4	6,357.7	4,460.4	1,897.3
증감률	22.5	19.2	15.9	25.5	419.6	-44.7	23.4	-10.7	26.1	65.8	-19.3
2014. 1~7월	46,377.9	14,006.9	9,440.9	4,566.0	1,675.5	2,890.5	32,371.0	3,605.5	28,765.6	18,084.2	10,681.3
2015. 1~7월	68,494.9	15,579.1	11,618.2	3,960.8	1,624.5	2,336.4	52,915.9	4,387.4	48,528.4	33,240.3	15,288.2
증감률	47.7	11.2	23.1	-13.3	-3.0	-19.2	63.5	21.7	68.7	83.8	43.1

주 : 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 통계청.

■ 민간 부문 : 23.4% 증가, 7월 실적으로 역대 최대치 경신

- 7월 민간수주는 주택수주가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비 23.4% 증가한 6조 7,111억원으로 집계돼 7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토목수주는 전년 동월비 10.7% 감소한 3,534억원으로 부진하였음.
 - 주택수주의 경우 7월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4조 4,604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비 65.8% 증가함.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서 재개발 사업이 증가했으며, 신규수주 또한 양호했던 것으로 판단됨.
 - 비주택 건축수주의 경우 비록 전년 동월비 19.3% 감소함. 다만, 7월 실적으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1조 8,973억원을 기록해 금액 자체는 양호했음.

■ 건축은 주택만 증가, 토목은 철도·궤도, 토지조성, 발전·송전 등 증가

- 건축공종의 경우 주택만 전년 동기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수주는 민간과 공공 모두 양호해 전년 동월비 76.0% 증가
 -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는 각각 전년 동월비 27.8%, 6.4%, 24.9% 감소
- 토목공종의 경우 도로 및 교량과 기계설치 수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양호
 - 철도 및 궤도는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비 3.1% 증가
 - 기계설치, 도로 및 교량수주는 각각 8.0%, 9.9% 감소해 다소 부진
 - 토지조성의 경우 지방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며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112.8% 급등, 석유 및 가스 관련 설비시설이 증가한 영향으로 토목 기타수주가 266.9% 급등하였으며, 발전 및 송전수주도 26.7%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임.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철도 및 궤도	기계설치	도로 및 교량	토지조성	토목기타	발전 및 송전
2015. 7월	4875.1	1098.1	654.3	314.3	78.2	366.3	294.9	239.5	222.9	194.5	53.1
증감률	76.0	-27.8	-6.4	-24.9	-51.0	3.1	-8.0	-9.9	112.8	266.9	26.7
2015. 1~7월	34,864.7	9,312.3	2,977.2	4,068.8	1,266.2	3,831.4	3,057.9	2,277.6	1,557.2	386.2	2,999.1
증감률	76.4	27.4	12.8	77.9	-5.0	71.8	73.2	-44.0	20.1	24.1	76.4

자료 : 통계청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9. 9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기금과 주최, '제47차 국민주택기금 심의위원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청약저축 금리인하 건 등 논의
9. 10	해외건설정책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해외건설정책자문위원회'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연구위원 참여 - 선진 건설기업의 사업동향 및 경영전략 논의
9. 11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제도와 주최,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TF 전체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실장 참여 -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점검 및 개선 필요사항 논의
9. 14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참여 - 분쟁조정 안건 의결
9. 15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제2차 소위원회'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연구위원 참여 - 분쟁조정 안건 처리
9. 16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정책관실 주최,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에 기획조정실 박용석 실장 참여
9. 17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안전본부 주최, '총괄건설정책자문단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실장 참여 - 서울시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자문
9. 18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산업포럼 국토교통분과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연구위원 참여 - RCEP, 한·중미, 한·에쿠아도르 무역협정 협상관련 의견 수렴

■ '2016년 연구과제' 공모

- 연구원은 외부 수요에 부응하는 실용적인 연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16년도에 우리 연구원이 추진할 연구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연구과제를 공모함.
 - 기 간 : 2015. 9. 1(화)~30(수)
 - 제안대상 : 건설 유관단체, 정부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건설업체 등
 - 접수처 : kslim@cerik.re.kr / trd8792@cerik.re.kr
 - 기 타 : 제안서 등 세부내용은 홈페이지(www.cerik.re.kr) 참조

■ 「CERIK 도서회원」 가입 안내

- 연구원은 건설산업 관련 보고서 및 CERIK저널, 건설동향브리핑 등 연구 결과물을 필요로 하는 관계자 및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음.
- 문의 : 기업지원팀(Tel. 02-3441-0848)

안전정책 발표 후 1년, 점검이 필요한 때다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각계각층이 제기한 ‘안전’ 이슈를 수렴하여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발전방안’을 그 해 8월 26일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안전’을 국가 핵심 어젠다의 하나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국민안전의식 제고라는 측면과 시설물 안전관리의 기반 조성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이 도입·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국민 일상생활 속의 위험요소를 신고·제보하는 ‘안전신문고’가 국민안전 의식 제고의 한 사례이다. 정부는 올 정부예산에 안전예산을 별도로 구분 편성하였고, 안전예산의 편성 기본원칙을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비상대응’에서 ‘일상관리’로 안전투자 방향을 전환하였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이 3중시설물로 정의되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추가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5대 과제 중 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적 공공투자를 통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공표하였다. 시설물의 안전투자에 부족한 재정은 민간투자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우수저장시설 및 사방설비 등 방재시설에도 민간투자방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2015년까지 3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과제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시설물 안전 제고에 재정투자를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민간자본을 유입시키고 이를 통해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안전투자를 통한 안전산업 육성과 내수활성화가 궁극적인 정책 목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재정투자 실적을 논하기 전에 2015년도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시설물 안전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 항목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과 ‘도시철도 내진보강’이 거의 구색 맞추기식으로 확정된 것은 안전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발전방안’은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발표한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대규모 안전점검 및 안전투자 확대방침’과 연계된 현 정부의 핵심정책과제이다. 하지만, 숙제를 받은 부서는 소극적이고, 숙제 담당부서로 지명되지 않은 수요 부서는 본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은 필자만 받는 것일까? 또한, ‘국민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숙제 검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자뿐일까?

<건설경제, 2015. 9. 17>

이영환(연구위원 · yhleee@cerik.re.kr)